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④ 보현봉(普賢峰)



보현보살께 기도 올리니 운무 걷혀

보현봉은 북한산 대남문 밖 남쪽에 있는 봉우리로서 높이는 714m이다.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에 속한다. 보현봉은 문수봉, 비봉과 함께 북한산 남쪽의 주봉을 형성한다. 보현봉은 북한산 봉우리 중에서 조망이 뛰어나서 북악산과 인왕산 너머 서울 사대문 안 중심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 세조도 이곳에 올라 천문 관측을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보현봉이 기가 센 곳이라는 소문이 나서 종교인과 무속인의 왕래가 잦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산림 보호를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보현봉은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창건한 보현사(지금의 일선사)에서 명칭이 유래한다. 도선국사는 신라 말의 승려로서 속성은 김(金), 자는 옥룡(玉龍), 호는 연기이다. 15세에 출가하여 월유산 화엄사에서 스님이 되었다.

도선국사가 고려 태조의 출생을 예언한 연유로 태조 이후의 고려 왕들은 도선국사를 극진히 존경했다. 도선국사는 승려로서보다 음악풍수설의 대가로서 알려져 있다. 저술로 <도선비>, <송악명당>

문수봉·비봉과 함께 남쪽 주봉

조망 뛰어나 사대문 안 한 눈에

도선국사 창건 '보현사'에서 유래

중종때 보현보살께 기우제 지내던 곳

기, <도선담상기>, <삼각산명당기> 등이 있다.

도선국사는 풍수지리의 대가답게 전국을 순회하며 명당에 해당하는 곳에 절을 많이 지었다. 스님은 남경(지금의 서울 부근)이 새로운 왕조의 도읍지가 될 곳임을 알았다.

스님은 남경의 진산에 해당하는 삼각산에 특히 주목했는데, <삼각산명당기>를 지은 것도 그 즈음이다. 스님은 삼각산을 답사하다가 기가 가장 센 봉우리를 발견하고, 그 봉우리 아래 굴(보현굴, 일명 다리나굴)에서 수도했다. 스님은 지금의 일선사 자리에 절을 세우고 보현사라 칭했다. 보현사 뒤의 봉우리는 보현사의 이름을 따서 보현봉이라 불리게 되었다.

보현굴 안 벽에는 신선도가, 오른쪽 바위에는 칠성도가 양각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훼손되어 흔적만 어렵게 남아 있다.

<세종실록>에, 세종이 "오늘 백악산(북악산, 해발 342미터)에 올라서 오랫동안 살펴본 즉, 보현봉의 산맥이 골짜기 백악으로 들어왔으니 지금의 경복궁이 바로 명당이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또, "삼각산 봉우리에서 내려와 보현봉이 되고, 보현봉에서 내려와 평행한 언덕 두어 마당이 되었다가 우뚝 솟아 일어난 높은 봉우리가 백악이다. 그 아

래에 명당을 이루어 넓적하게 바둑판같이 되어서 만 명의 군사가 들어설 만하니 이것이 바로 명당이고, 여기가 곧 명당 앞뒤로의 한복판 되는 땅이다."라 하여 보현봉이 고대로부터 국방의 요충지였음을 밝혔다.

조선 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은 남북 축선을 따라 정연하게 전각을 배치했다. 광화문과 근정전을 지나는 남북 축선을 연장하면 북쪽은 북한산 보현봉, 남쪽은 관악산을 지난다.

경복궁은 국토의 관념상 중심이며 건축물의 규범이었다. 임금이 직무를 보던 근정전을 보현봉과 일직선으로 한 것만 보아도 보현봉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조선조 중종 때의 일이다. 조정에서 지금의 종로구 평창동 지역에 양곡을 저장하는 창고를 지었다. 평창이란 지명도 거기에서 유래한다. 조정에서는 창고를 지은 후 풍년을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낼 곳을 물색한 끝에 삼각산 보현봉을 그 장소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기우제를 지내려 하자 보현봉에 운무가 끼어서 좀체 접근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논의한 끝에 보현사의 스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보현사의 노스님이 보현보살께 기도를 올렸더니 운무가 걷혀 무사히 기우제를 지낼 수 있었다. 보현봉 아래에 있는 천제단이 바로 매년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유교적 이념을 숭상하던 조선 시대에 보현봉에서 기우제를 지낸 것은 보현보살의 위신력에 의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 신분이 낮았던 스님을 청해 기도를 올린 것도 만백성이 한마음으로 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생의 이익을 위해 원을 세우고 실천한 보현보살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을 좌우에서 보좌하는 보살이다. 문수보살이 지혜의 화신이라면 보현보살은 실천 수행의 화신이다. 보현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세운 열 가지 원(願)은 모든 구도자가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다.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부터 보현 신앙이 발달했다. 고려 광종 때 관여대사가 <보현심원기>를 지은 것도 이를 민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다.

예부터 보현봉을 북한산의 주봉으로 여겨 온 것은 서울 어디서 보아도 제일 잘 보이기 때문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근정전 너머 우뚝 솟아 있는 봉우리가 보현봉이다.

보현봉은 바위 구간이어서 등반이 쉽지 않지만 봉우리에 오르면 조망이 뛰어나다. 이는 마치 실천 수행의 어려움과 그 보람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문수봉과 보현봉이 대남문을 가운데 두고 마주하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에게 지혜와 실천 수행의 참맛을 일깨워 주려 하였을까.

<애기꾼> 신이산

화려하고 아름다워 더 애처로운 金閣이여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고찰을 가다

④ 교토 킨카쿠지



킨카쿠지의 명소 '금각'과 정원의 전경. 본래 이름은 로쿠온지이지만 금각이 너무 유명해 킨카쿠지로 불리운다. 1994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했다.



킨카쿠지 경내에 있는 룬문바쿠(龍門瀑). 이무기가 뛰어오르면 용이 된다고 하는 중국의 용문을 재현했다.

"내일이야말로 금각이 불타리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형태가 사라지리라. 그 순간 꼭대기의 봉황은 불사조처럼 도살아 날아가리라." (미시마 유키오 <금각사>중)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 1925 ~ 1970)는 20세기 일본 문단의 최고 문제이었다. 자기 소멸에 이르는 극단적 유태주의부터 동성애자, 극우주의자, 전공투 학생들과의 맞장 토론, 공개적인 할복까지 그는 전 생애를 거쳐 항상 문제의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랬던 그가 선의 공안(公案)을 중심으로 말터듬이 수행승의 치열한 고뇌를 묘사한 <금각사>를 쓰게 된 것은 좀 의아하기도 하다.

교토의 찬란한 금빛 사찰, 킨카쿠지(金閣寺)의 공식적인 이름은 로쿠온지(鹿苑寺)다. 그러나 물위에 떠 있는 금박의 누각이 워낙 유명해 금각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

사실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금각사>의 모티브가 된 것은 정신병이 있는 한 승려가 저지른 금각사 방화사건이다. 1950년 일어난 이 방화사건으로 킨카쿠지가 자랑하는 금각 전각은 소실됐고, 지금의 전각은 1955년 재건축된 것이다. 전각의 금박은 1962년에 이어 1987년에 다시 입혀졌으며, 이후 매년 교토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수되고 있다.

킨카쿠지가 일본에서 유명세를 탈 수 있던 것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때문이라고 하지만, 금빛 전각의 아름다움은 전 세계 여행객들을 킨카쿠지로 모으려게 하는 원인이자, 실제 이 같은 미적 가치를 인정받아 킨카쿠지는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킨카쿠지는 본래 무로마치 막부 시대의 장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가 1397년에 지은 별장이었으나, 그가 죽은 뒤 유언에 따라 로쿠온지라는 선종(禪宗) 사찰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는 입체 중 소코쿠지(相國寺)와 소속 사찰이다. 금각을 중심으로 한 정원과 건축물은 극락정토를 세상에 표현했다고 해 조성 당시에도 많은 화제를 모았다고 한다. 실제 고코마츠 천황(무로마치 고승 잇쿠 스님의 아버지)이 초대돼 다녀가기도 했다.



킨카쿠지 경내 특산물, 기념품 가게들. 특색있는 문화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

장군의 별장이 입체 선종 사찰로

미시마 유키오 소설 <금각사> 발표

더욱 유명세... 日 탐미주의 절정

킨카쿠지의 명소 금각은 무로마치시대 전기의 기타아마(北山) 문화를 상징하는 3층 건물로서 각 층마다 건축양식의 시대가 다르다. 1층은 후지와라기, 2층은 가마쿠라기, 3층은 중국 당나라 양식으로 각 시대의 양식을 독창적으로 절충했다. 1층은 침전과 거실로 쓰이고, 2층에는 관세음보살을 모셔두었으며, 3층은 선종 불전이다. 이 가운데 2층과 3층은 옷칠을 한 위에 금박을 입혔다.

금각의 잔영이 잔잔히 비치는 정원은 절경이다. 킨카쿠지의 정원은 당시의 다이묘가 헌납한 바위들로 조성된 크고 작은 섬들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려 했던 일본인들의 미적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

킨카쿠지에서 색다르게 만나볼 수 있는 것은 문

화상품 각국 일본의 면모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킨카쿠지의 입장권이다. 킨카쿠지의 입장권은 우리말로 하면 일종의 부적이다. 하얀 한지 위에 '금각사'의 사명과 가내 안병, 건강, 길운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써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입장권이 일회용 통행증의 용도라면 킨카쿠지의 입장권은 말 그대로 소장할 가치가 있는 기념품이다.

또한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를 이용한 캐릭터 상품도 눈에 띄었다. 최근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원피스'부터 월트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 도널드 덕, 구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 '헬로 키티'가 일본 기모노를 입고 금각과 함께 있는 캐릭터 상품들이 킨카쿠지 상점가에 즐비하다. 모두 '킨카쿠지 한정'으로 오직 킨카쿠지에서만 판매된다.

'저패니메이션(일본 애니메이션)을 일컫는 신조어, 아니메라고도 한다'에 관심있는 푸른 눈의 서양인 가족들이 이들 캐릭터 상품들을 구매하는 모습을 킨카쿠지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두 가지 사례 모두 '사찰의 세속화'라는 비판도 제기할 만 하지만, 자신의 문화를 현대적으로 변용해 사찰 재정에 활용하는 부분은 한국불교가 고민해볼 부분이다.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금각사>에서 주인공은 금각의 방화 직전까지 입체 선사의 '살불살조(殺佛殺祖)'를 읊조린다. 그리고 금각을 방화함으로써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등의 일체 경계를 허물고 자신 안에서 '절대적 아름다움'으로 완성시킨다. 그래서인가. 다시 돌아온 킨카쿠지의 금각이 아름답지만 애처로운 것은...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日江 스님께서 정리하신 알기쉬운 상용의식과 신간저서 안내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엔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창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 인기 판매 중!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창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 점안 의식은 이 책 한편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 불공, 관음시식 등 재의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집 (2010 신간)
누구나 간편하게 따라하면 의식집, 송가 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일체 후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망향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신간 고사와 치성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고사와 치성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으며 상차림, 준비물, 방법까지도 알기 쉽게 쓰여있어 초보자들도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사암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값: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46배판 1144쪽 | 값 13,000원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